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장 신 목
〈새 생각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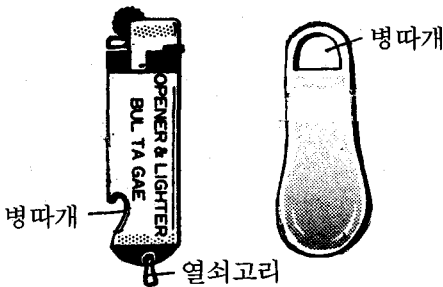
불타개

한 해에 세계에서 30억원어치나 팔리는 불타개 <그림 1>는 라이타 아래쪽에 병따개의 기능을 더한 것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쓰이는 판촉용 선물로 안성맞춤이다.

라이타만의 판촉물은 담배 피우는 소수의 사람들 것이어서 제 구실을 못한다. 판촉물은 작고 값싸면서도 누구나 널리 쓰이는 것일수록 바람직하다.

구두주걱의 손잡이를 병따개로 만든 구두주걱 따개 <그림 2>는 언뜻 보면 그럴법하지만 곰곰 따져 보면 거북스러운 더하기 발명이다.

이것과 저것을 더하여 그 효과가 높아질 때 비로소 발명이라 할 수 있다. 구두주걱은 구린내 나는 발에, 병따개는 깨끗한 입에 쓰는 것, 그러니 억지로 만난 부부처럼 잘못 더한 발명이다.



<그림 1>

<그림 2>

불펜 메모꽂이, 골판 메모꽂이

집계를 붙인 장방형의 메모판 한 쪽에 불펜을 끈으로 이어놓은 불펜 메모판 <그림 3>은 메모지를 보관하기도 좋고, 불펜을 쓴 다음에 끼우면 끈이 스크르 감겨서 깔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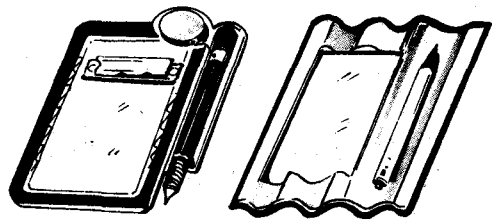
비록 조그만 것들의 더하기지만 필요한 것끼리의 바람직한 만남이다.

끈은 불펜의 분실을 막고, 질개는 메모지를 제 자리에 보관해 준다.

잔잔한 물결처럼 된 골판 가운데에는 메모지를 담고, 한 쪽 끝엔 불펜을 얹는, 골판 메모판 <그림 4>은 불폼이 좋고 쓸모있는 사무용구다.

간직하기 쉽고 불폼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발명의 필수조건이다.

우리 둘레엔 수많은 것들이 더 편하고 더 아름답게 해 달라고 애타게 발명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림 3>

<그림 4>

절첩 거울, 만능 거울

쓸 때는 다리를 펴고, 둘 때는 접는 절첩 거울 <그림 5>은 포장할 때 덩저리가 훨씬 줄어들어 매우 경제적이다. 초기의 거울은 손잡이가 달린 손거울이던 것을, 다리를 붙여 세우는 거울로 한 것은 화장할 때 양손을 모두 쓸수 있게 해 매우 편리하다.

태양아래 완전무결한 것은 없으므로 발명거리는 한 없이 남아 있다.

한 쪽은 보통 거울, 다른 쪽은 확대거울인 손거울과, 발침위에 없으면 되는 만능 거울 <그림 6>은 그야말로 앞뒤와 쥐고 세우게도 마음대로 한 것은 상품의 수준을 넘어 예술의 경지로 끌어 올렸다. 간단한 거울이지만 전후 상하를 고루 배려한 것이야말로 놀랍다.

두뇌를 명석하게 하는데 발명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우리 모두 발명하자.

발명 4득

- 1+1=1 이것이 발명
- 1+1=3 이래야 발명
- 1+1=4 발명의 4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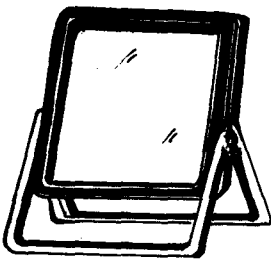
발명하면 소중한 네 가지를 얻는다.

첫째, 두뇌가 명석해진다. 발명은 머릴 많이 써야 하므로 머리가 좋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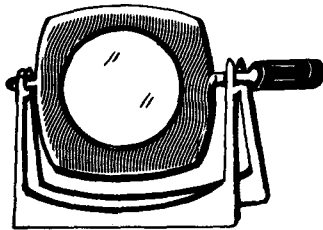
둘째, 인류에게 공헌한다. 인류는 수많은 발명 덕에 풍요한 생활을 누린다.

셋째, 명예를 얻는다. 한글은 세종대왕, 비행기는 라이트형제처럼 발명가의 이름은 인류역사와 함께 길이 빛나리라.

넷째, 돈벌이가 된다. 발명처럼 깨끗하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림 5>



<그림 6>

두뇌 4기능

인간두뇌의 4대 기능 다음과 같다.

첫째, 흡수력—지식을 흡수하여 소화하는 기능.

둘째, 기억력—지식을 기억하여 재생하는 기능.

셋째, 판단력—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기능.

넷째, 상상력—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기능.

흡수력과 기억력은 학습활동을 하고 판단력과 상상력을 써서 생각하는 생활을 날마다 반복한다. “상상력을 안가진 정신은 망원경을 안가진 천문대 같다.”

팔릴 것을

발명은 발명이 혼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함께 쓰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까진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렸지만 지금부터 팔릴 물건은 미리 헤아려 만들어야 팔리는 시대가 왔다.

과거는 기술부족으로 아무나 물건을 못만들었지만, 현재는 기술의 평준화로 매일 신상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세계 제일의 상품을 만들기에 미치다싶이 해야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다.

특허없이

독일에선 ‘특허없는 기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특허가진 기업이 3%도 안된다니 한심스럽고 두렵기만 하다.

특허없는 기업인은 올라가미없는 개장수와 무엇이 다르랴. 이는 마치 면허없는 운전사나 자격없는 돌파리의사와 같다. 무면허 운전기사는 사고대기 십상이고, 돌파리의사는 사람 죽이기 쉽듯 특허없는 기업은 망하는 길밖에 별 수가 없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 특허없는 기업이 돈을 벌겠다는 것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겠다는 얼간이 꼴이다. 서둘러 발명하여 특허로 무장하라. <♣>